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에 의한 독서치료 주제 분야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Therapy by Ego-centered Topic Citation Analysis

장윤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t cure@sen.go.kr

Yun-Mee, Chang, Ewha Womans University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독서치료 주제 연구 문헌을 배출한 학문분야와 주요 연구 내용, 여기에 영향을 미친 문헌의 주제 분야를 도출하고 독서치료 주제 연구 문헌을 바라보는 타 문헌들의 시각을 통해 독서치료 주제 연구 문헌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을 실행한 결과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 정보학계의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하여 임상적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외에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유아 정서지능과 영화치료를 주제로 하는 문헌들에 응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서치료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의 일부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독서치료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은 도서관 현장에 전달되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계를 중심으로 교육학, 심리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서치료 주제 연구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하위 주제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쉽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독

서치료 주제 연구 문헌의 세부 주제를 탐색하고 문헌들이 인용한 참고문헌을 통해 근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 문헌 집합 분석과 주제 인용 정체성 분석, 주제 자아 인식 이미지 구축자 및 이미지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독서치료 주제 연구 문헌을 배출한 학문분야와 주요 연구 내용, 여기에 영향을 미친 문헌의 주제 분야와 관련 내용을 도출하고 독서치료 주제 연구 문헌을 바라보는 타 문헌들의 시각을 통해 독서치료 주제 연구 문헌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첫째,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중 “독서치료” 주제 논문을 검색하여 독서치료 자아

문헌 집합과 독서치료 주제 주요 문헌을 선정하여 서지결합(Kessler, 1963)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고 문헌의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둘째, 독서치료 자아 문헌 집합이 자주 인용한 문헌들을 인용 정체성 대표 문헌집합으로 선정하고 문헌 동시인용(Small, 1973) 분석을 통해 자아 문헌 집합의 근원을 탐색하였다.

셋째, 독서치료 주제 주요문헌을 인용한 문헌들을 이미지 구축자로 규정하고 서지결합 분석을 통해 정체성을 규명하였으며, 독서치료 주제 인용 이미지 분석을 위해 이미지 구축자가 인용한 문헌들을 대상으로 동시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바탕으로 Ward 기법을 사용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는 SPSS v.18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분석에는 NodeXL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치료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발달적 혹은 특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참여자가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일대일이나 집단으로 토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여러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적응, 성장 및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는 것을 말한다(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연구회, 2003).

우리나라에서는 손정표 교수가 1970년대에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의의를 제기한 이래 30여년의 ‘준비기’를 거친 후, 2000년대에 비로소 도서관에서 운영 가능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김정근, 2005). 또한 현재 다양한 도서관에서 발달적, 체험형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도서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관심과 함께 독서치료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독서치료 주제 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제성을 띠고 있어 하위주제 및 관련 학문분야가 다양하다. 따라서 독서치료 주제 분야의 근원과 현재의 정체성에 대한 파악은 독서치료 관련 연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2.2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주제 분야의 지적구조와 근원 파악을 위해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재윤(2012)이 제안한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은 자아를 특정 주제 연구문헌 집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제의 미시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타주제를 포함하는 거시적 해석이 가능한 기법(이재윤, 2012)이며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헌 집합을 자아 문헌 집합(ego documents)이라 명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지결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개별 문헌들의 군집별 하위 주제를 탐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아 문헌의 근원 탐색을 위해 이들 문헌이 인용한 참고문헌들을 대상으로 동시인용분석을 실행하는데, 여기에서 인용된 주요 문헌 집합을 주제 인용 정체성(topic citation identity)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자아 문헌 집합을 인용한 타자의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타자 문헌이 인용한 피인용

문헌을 대상으로 동시인용분석을 실행하고, 주제 문헌 집합을 인용한 문헌 집합을 주제 인용 이미지 구축자(topic citation image maker), 주제 문헌 집합과 동시 인용된 주요 문헌 집합을 주제 인용 이미지(topic citation image)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분석방법 외에 서지결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자아 문헌 집합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이미지 구축자의 정체성을 추가적으로 규명하였다.

3. 분석결과 및 논의

3.1 독서치료 주제 자아 문헌 집합 분석

2013년 7월 16일,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독서치료”라는 키워드가 제목, 저자, 부여 키워드,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KCI 등재 학술지 논문 90건을 검색하였고, 이 중 참고문헌이 모두 인터넷 사이트로 구성된 문헌 2건과 어떠한 문헌과도 참고문헌을 공유하지 않는 문헌 1건을 제외하여 총 87건을 독서치료 자아 문헌 집합으로 선정하였다.

자아 문헌 집합 중 1회 이상 인용된 44개의 문헌을 독서치료 주제 주요 문헌으로 규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지결합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군집은 총 6개로 발달적 독서치료, 임상적 독서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독서치료의 효과, 독서치료 연구동향, 혼합 군집이었다.

중심성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임상적 독서치료를 다룬 문헌 군집의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현재 학계의 관심이 임상적 독서치료에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 자아 문헌 집합 내 군집별 중심성 평균

구분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발달적 독서치료	0.017	18.981	26
혼합	0.017	12.753	24
독서치료 연구동향	0.016	20.739	19
임상적 독서치료	0.018	29.882	28
독서치료의 효과	0.013	3.508	10
독서치료 프로그램개발	0.015	10.696	17

독서치료 주제 주요 문헌들을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이 27건(61.4%), 교육학이 6건(13.6%), 심리학이 4건(9.1%), 생활과학이 3건(6.8%)로 90.9%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수산학, 사회과학 일반, 사회복지학, 문학 분야의 문헌은 1건이었다. 교육학 분야의 문헌은 발달적 독서치료를 주로 다루고 있었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은 이를 제외한 모든 군집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독서치료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계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독서치료 주제 인용 정체성 분석

다음으로는 자아 문헌 집합 87건의 참고문헌 2,650건 중 인용된 횟수가 4회 이상인 문헌 67건을 독서치료 주제 인용 정체성 대표 문헌집합으로 확정하고 문헌 동시인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독서치료 이론, 프로그램 운영, 발달적 독서치료, 임상적 독서치료, 혼합 군집, 총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중심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임상적 독서치료를 다룬 문헌 군집의 근접중심성과 연결정도 중심성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 군집의 매개중심성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표 2> 주제 인용 정체성 문헌 내
군집별 중심성 평균

구분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독서치료 이론	0.009	10.057	21
프로그램 운영	0.010	19.355	32
발달적 독서치료	0.009	6.960	24
임상적 독서치료	0.011	21.101	39
혼합	0.010	23.400	35

명확한 학문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행본 20건을 제외하고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학문분야를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이 23건(48.9%), 교육학이 11건(23.4%), 심리과학이 6건(12.8%)로 85.1%를 차지하였다. 독서치료 이론, 프로그램 운영, 임상적 독서치료 관련 문헌들은 대부분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들이었고, 발달적 독서치료에 대한 문헌은 교육학, 심리과학, 생활과학 분야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발달적 독서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분야와 문헌정보학계 문헌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3.3 독서치료 주제 인용 이미지 구축자 및 이미지 분석

독서치료 주제 주요문헌 44건을 인용한 72건의 문헌을 이미지 구축자로 규정하고,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미지 구축자가 인용한 문헌 총 2,344건을 토대로 서지결합 분석을 실행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총 8개의 군집이 나타났으며, 독서치료 프로그램 전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등 독서치료를 다룬 문헌들과 독서프로그램, 영화치료, 그림책 활용법, 글쓰기 치료 등 독서치료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하위분야가 발견되었다. 또한 미술치료,

도서관 정보봉사, 독서능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혼합 군집도 나타났다.

<표 3> 독서치료 주제 인용 이미지
구축자 내 군집별 중심성 평균

구분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독서치료 프로그램 전반	0.007	90.675	15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0.007	102.131	16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적용	0.007	83.746	17
독서 프로그램 영화치료	0.005	56.220	6
그림책 활용법	0.004	35.124	5
글쓰기치료	0.005	70.271	7
글쓰기치료	0.005	34.661	3
혼합	0.005	46.847	5

중심성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독서치료를 다룬 세 문헌 군집의 근접중심성 평균값이 공히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높았고, 두 번째 군집은 매개중심성 평균값이, 세 번째 군집은 연결정도 중심성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또한 독서치료 주제 주요문헌을 인용한 72개 문헌들을 학문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문헌정보학이 25건(34.7%), 교육학이 17건(23.6%), 한국어와 문학이 4건(5.6%), 기타사회과학, 심리과학이 각각 3건(4.2%), 기타인문학, 생활과학, 신문방송학, 학제간연구가 각각 2건(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공학일반, 독일어와 문학, 디자인, 사회복지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서치료 주제 주요문헌을 인용하였는데, 심리과학 분야의 문헌이 상대적으로 적어 독서치료에 대한 심리과학 분야의 관심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72건의 이미지 구축자 문헌이 3회 이상 인용한 문헌 53건을 대상으로 동시인용분석을 수행하여 독서치료 주제 인용 이미지를 파악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총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고, 유아

정서지능, 영화치료, 독서치료 연구동향, 독서치료 이론과 같은 단일 주제 군집뿐 아니라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임상적 독서치료의 효과, 독서 및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이 혼재된 군집도 나타났다. 이를 독서치료 주제 주요문헌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새롭게 등장한 유아 정서지능, 영화치료 군집을 통해 이러한 연구들이 독서치료와 융합되거나 독서치료에 도입된 주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 독서치료 주제 인용 이미지 내 군집별 중심성 평균

구분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유아 정서지능	0.008	0.375	3
영화치료	0.007	48.557	5
독서치료 연구동향	0.011	22.744	16
독서치료 이론	0.011	38.151	21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임상적 독서치료의 효과	0.010	24.502	15
독서 프로그램+독서치료 프로그램	0.008	10.977	5

중심성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독서치료 이론 군집은 근접중심성과 연결정도 중심성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독서치료 연구동향 군집은 근접중심성 평균값이 독서치료 이론 군집과 동일하였으며 매개중심성의 경우 영화치료 군집이 월등히 높았다.

이 문헌들을 단행본 11건과 학문분야를 규정하기 어려운 해외 문헌 3건을 제외하고 학문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문헌정보학 26건(66.7%), 교육학 5건(12.8%), 심리과학 3건(7.7%), 사회복지학과 정신과학분야가 각각 2건(5.1%), 사회복지학/교육학 분야가 1건(2.6%)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연구는 현재 문헌정보학계에서 임상적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가 독서치료 주제 주요문헌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이를 토대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확대되었다. 셋째, 독서치료 주제 주요문헌을 인용한 이미지 구축 문헌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나타났으나, 문헌정보학, 교육학, 한국어와 문학 분야가 주를 이루었고, 심리과학 분야의 문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넷째, 독서치료 문헌들은 유아 정서지능, 영화치료를 주제로 하는 문헌들에 응용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독서치료 연구는 교육학, 심리과학,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양한 문헌들의 영향을 받아 문헌정보학계의 주도하에 발전해 왔다. 학제성을 띠는 주제 분야인 독서치료의 경우 학문 간의 적극적인 융합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의 규모가 축소된 심리과학 분야와 같은 타 분야와의 교류, 협업 등을 통해 독서치료 연구의 꾸준한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근. (2005). 독서치료의 현단계. 도서관문화, 46(3), 46-49.
 이재운. (2012). 폭소노미 연구 문헌에 대한 자아 중심 주제 인용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9(4), 295-31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연구회. (2003).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Kessler, M. M. (1963). Bibliographic coupling between scientific papers. American Documentation, 14(1), 10-25.
 Small, H.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